[서울=뉴시스] 추상철 기자 =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'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'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. 2024.05.13. scchoo@newsis.com /사진=추상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을 소환 조사한다.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아파트 주민 권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. 권씨는 지난 2022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과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윤 대통령에게 남긴 친필 글귀가 적힌 회고록 등을 주웠다고 주장했다.검찰은 권씨에게 습득한 책들 가운데 최 목사의 책을 가지고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.